

##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 NO | 대상자명 | 관 계 | 구체적 전도방법 | 영적수준 | 비 고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 NO | 성 명 | 기도제목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그룹장 모임(11/13)                      - 예손 예배(11/13, 6:00pm, 새가족 환영식)
  - 추수감사 특별새벽 부흥회(11/17~22, 강사: 한기흥 목사)
  - 목자 부흥의 밤(11/25, 8:00pm, 친교실)
  - GTD 210기 (여자기, 11/30~12/3, 렉터: 김은주 권사)
  - 가정교회 목자 분가(임명)식(11/30)

가정교회 예배안 2025. 11. 9

## 11월 둘째 주: 긴장을 풀지 맙시다 (누가복음12:35-40)

### ■ Welcome

제일 마음이 느슨한 날, 요일 혹은 때는 언제인가? 이유는?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 본문: 누가복음 12:35~40

35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 ■ 서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무서운 환난이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 환난의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 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또한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대하7:13-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무려 2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는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 하도다 하시고”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약 4:7)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3)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데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이고,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의 눈에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은 있었지만 뜨거움이 없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4)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눅 12:40)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깨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관찰 질문: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해답 1.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엡 6:14)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할 때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변의 아이들은 모두 왕의 진미를 먹었지만, 다니엘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결단했다.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으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또한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 적용 질문 1

- 1) 최근 나를 흔들었던 세속적인 유혹이나 비진리적인 생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답 2.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 명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을 실제로 맞이한 것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등불은 계속 기름을 채워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체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심령에 불이 켜지고, 영적인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 적용 질문 2

- 1) 현재 나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영적 등불의 기름을 소모시키는 행위나 습관은 무엇인가?
- 2) 성령 충만을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필요할까요?

해답 3. 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인의 부름을 받고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3.1 운동에 참가한 17세의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빛의 자녀로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적용 질문 3

- 1) 내가 하기 싫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종의 영역 (예: 용서, 재정적 나눔, 희생적인 봉사 등)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2) 주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예’라고 답하셨던 때의 간증을 나누어 봅시다.
- 3) 나는 ‘세상의 양심’으로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곳 (지역 사회의 문제, 소외된 계층, 국가적 위기, 선교지 등) 어디인가요?